

머프(Muff)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김 선 영[†]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The Study on the History and Aesthetic Value of Muff

Sun-Yo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04. 12. 30. 접수: 2005. 7. 1. 채택)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development process of muff has changed over history as well as considering value. This study is based on secondary sources such as books and fashion magazines. The imminent value of muf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historical study can be summarized by its utility, its ornamentation, and its fashion value. First, muff is not only used to protect the hands or to keep them warm, but also as a substitute for the purse. Second, muff is an ornament decorated mainly with fur, using splendid colors, patterns, embroidery etc. Third, muff goes with other clothes as an ornament, and therefore, can be a means to express the attitude or behavior of many circumstances. Muff has vanished in casual wear and could meet by chance in a designers collection. However, the fashion value of muff brings it new attention making various creative fashion images by itself or with other clothes in the modern fashion trend. This study on the history and the aesthetic value of muff could stimulate the appreciation of the ornamentation aside from the clothes and serve to develop a new creative way in fashion design.

Key words: fashion(패션성), muff(머프), ornamentation(장식성), utility(실용성).

I. 서 론

인체를 감싸는 의복뿐만 아니라 모자, 신발, 장갑 등 여러 장신구들을 포함하는 복식은 인간 내면의 욕구나 미의식을 표현하는 예술 분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체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복식과 마찬가지로 인체를 주제로 표현되는 그림이나 조각 등 여러 순수 예술 작품들 속에서 특히 아름다운 손의 자태나 그 표현의 풍부성을 표현해 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볼 수 있으며 손에 대한 아름다움은 언제나 여성들의 큰 관

심사였다.

의복과 관계하여 여러 장신구들 중 머프는 단순히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 하나의 도구라는 위치를 넘어서서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져 왔다. 그러나 기성복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패션의 흐름과 편안함이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적 현상 속에서 복식의 우아함이라는 코드는 과거와는 다른 절충적 방법의 현대적 이미지로 표현되면서 머프는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고 부수적인 장식물로 존재해 왔다. 또한 머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복식사나 모피에 관한 연구 중 단어의 소개 정도로 간단하

[†] 교신저자 E-mail: bcbgyoung@hanmail.net

게 언급될 뿐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머프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여기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현대 패션이 부분적인 디테일이나 소품으로 인해 전체의상의 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하고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토탈 패션으로서의 이미지 전달이 주를 이루기도 하면서 여러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복식사 분야에서 특히 머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천을 통해 새로운 도넛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머프의 사적 고찰을 위한 문헌적 연구로 관련 서적 및 패션 잡지 등을 조사 연구하며 연구 범위는 머프의 기원과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및 기원

원통 모양의 형태로 패드를 넣은 모피 소재의 도시를 의미하는 머프는 불어로 ‘망송(manchon)’이라고도 하며, mitons,¹⁾ mitaines,²⁾ mouffles³⁾ 등과 같이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였다. 그러나 외딴인 머프와는 달리 다른 것들은 좌우의 쌍을 이루면서 장갑의 형태와 기능을 더 강하게 보이며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들이다.

Petit Larousse 사전에 의하면 ‘손을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넣는 모피로 된 원통형의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8세기 Dictionnaire Universel의 저자인 Furetière에 의하면 ‘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넣는 모피로 예전에는 여성들 전용이었

으나 요즘에는 남성들도 착용한다. 가장 아름다운 머프는 검은담비 털로 이루어진 것이다.’⁴⁾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머프는 프랑스 앙리 3세 시대에 처음 등장하게 되나⁵⁾ 여러 문헌 등을 통해 그 시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Furetière에 의하면 머프는 15세기 말 베니스에서 처음 출현하였다고 하였으며,⁶⁾ 《A History of Fashion》의 J. Anderson Black,⁷⁾ 《Die Mode》의 Max Von Boehn,⁸⁾ 《서양복식문화사》의 정홍숙⁹⁾은 17세기 초 프랑스에서 처음 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머프에 관한 기록을 보면 1530년경 프랑스의 작가인 라블레(Rabelais)의 《Gargantua》라는 작품 속에서 의상을 묘사하는 구절 중 여인들의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머프의 색상에 따라 아름다운 것 털 장식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1597년 니콜라이 재판장의 과부에 대한 재산 목록 중 <귀부인의 의복>이라는 항목에서 ‘검은 담비로 안을 댄 벨벳 머프’¹⁰⁾가 언급되어 있어 머프의 사용에 대한 기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1590년경 베니스의 귀족사회에서 새틴으로 안을 댄 검은 담비나 흰 담비, 여우 털 등으로 된 머프나 모피로 안을 댄 큰 펠리스(Pelisse)를 입곤 했다¹¹⁾고 하여 17세기 초 프랑스에서 처음 출현한 것이 아닌 그 이전부터 프랑스 국내외에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후반 프랑스 궁정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머프는 Contenance, Bonnes Graces라고 불리면서¹²⁾ 하나의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의복의 외관

1) 손가락만 남기고 팔꿈치까지 덮는 도시.

2) 손가락 둘째 마디까지 노출시키는 장갑의 일종.

3) 뱀어리 장갑.

4) Nicole Le Maux, *Secrets de manchons* (Paris: Syros, 1996), p. 14.

5) Maurice-Lcloir, *Dictionnaire du costume* (Paris: Grund, 1992), p. 232.

6) Palais Galliera, *Indispensables Accessoires* (Paris: Palais Galliera, 1984), p. 38.

7) J. Anderson Black, *세계패션사*, 윤길순 역, (자각아카데미, 1997), p. 261.

8) Max Von Boehn, *패션의 역사 2*, 천미수 역, (한길아트, 2000), p. 202.

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 429.

10) Nicole Le Maux, *Op. cit.*, pp. 18-22.

11) *Ibid.*, p. 22.

12) Bruno Remary, *Dictionnaire de la mode au XVIII^e siècle* (Paris: Edition du Regard, 1994), p. 360. Contenance란 16~17세기 경 작은 거울이나 소품 등을 허리에 매달아 다니던 유행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처하는 태도나, 복장에 있어 예의바른 품가감 등을 일컫는다.

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Ⅲ. 머프의 사적 고찰

1. 17세기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의 바로크(Baroque)는 17세기를 특징짓는 양식으로 조화와 균형이 파괴된 데서 오는 부조화나 황당무계함을 특색으로 하는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기품을 의미하는데, 내세에 대한 동경보다 현세에서의 쾌락 추구를 인생목적으로 하여 더욱 호화롭게 시행하였다.¹³⁾

복식에 있어서는 화려한 레이스와 리본, 러프 장식 등이 크게 유행하여 호화로운 장식의 모티프들이 특색을 이루었고, 여성들은 마스크, 머프, 부채 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애용하였는데 머프는 방한용이라기보다 사실상 없어서는 안될 패션의 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그림 1>과 같이 목과 어깨가 드러나는 데콜테(Décolleté) 드레스만을 입고 그 위에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래도 머프만은 손에 끼고 있어¹⁴⁾ 단순히 장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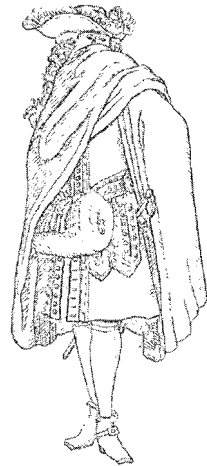
또한 방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루이 13세 시기에 귀부인들은 방도, 마스크, 머리 두건과 함께 머프를 조화시켰으며(그림 2), 팔을 보호하기 위해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이나 머프를 착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에 사용한 머프는 동물 털과 직물로 만들어졌는데, 남녀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을 ‘페피스가 아내에게 새 머프를 사주고 자신은 그녀의 현 머프를 사용하였다.’¹⁵⁾라는 말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림 3>은 1689년 경 풍성한 케이프를 착용한 프랑스 남성 복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한을 위한 머프가 벨트에 달려 있다. 이 시기의 멋쟁이 신사들이 들고 다니는 세세한 액세서리도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어 장갑을 끼지 않고 머프를 끼는 것이 크게 유행하



<그림 1> 부르주아의 복식. <그림 2> 겨울 옷차림.
1635년 (Le costume Francais, p. 101). 1643년 (2000 years of Fashion, p. 273).

였으며,¹⁶⁾ 머프에 Passe-caille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허리띠의 종류로 허리에 매고 다니거나 목에 걸고 다녔다.¹⁷⁾



<그림 3> 프랑스 남자 복식.
1689년 (복식의 역사, p. 405).

13) 유송옥, 이은영, 황진진,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6), p. 122.

14) J. Anderson Black, *Op. cit.*, p. 241.

15) Blanche Payne,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1988), p. 418.

16) J. Anderson Black, *Op. cit.*, p. 252.

17) Palais Galliera, *Op. cit.*, p. 38.

17세기 후반기의 머프는 전반기에 비해 한쪽 손목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아주 작아졌으며, 루이 14세 치하의 귀부인들은 보석이나 단추, 새틴으로 된 리본 장식, 금으로 된 끈 장식 등으로 치장된 흰 담비나 검은 담비 털 소재의 머프를 착용하였다.¹⁸⁾

사회 계급간의 분열은 의복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머프에서도 볼 수 있다. 상류 사회 귀부인들은 비단이나 새틴, 화려한 비단 등 반짝거리는 색상의 직물과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모피 소재를, 부르주아 계층은 검정색 고급 직물이나 개, 고양이 등의 가죽을 사용했다. 또한 부인들은 머프 속에 작은 애완용 강아지를 넣고 다니는 것이 유행하여¹⁹⁾ Chiens-manchon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²⁰⁾

초반기 머프의 경우 모피로 된 두 개의 밴드 사이에 직물을 놓고 안쪽에 모피를 댄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직물이나 솜으로 안을 대기도 하였고 전체가 모피로 된 것, 깃털로 장식한 것 등 다채로운 머프가 나타나게 되었다.

2. 18세기

18세기의 로코코(Rococo) 양식은 리드미컬한 곡선을 주제로 밝고 화려하며 세련된 귀족적 취미를 표현한 것으로 부드럽고 섬세하며 우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²¹⁾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와네트의 사치로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으며 살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속에서 여성복은 인체를 확장한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을 중심으로 쾌락적이고 관능적인 디자인이 지배적이었다. 여성의 질은 화장, 가면, 뷰티스팟(Beauty spot), 핸드백, 부채 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머프가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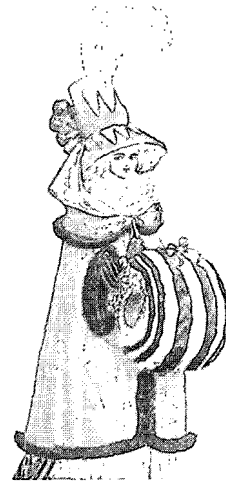
18세기 전반기의 경향은 먼저 손을 교차시키기에 약간의 공간만을 남겨둘 정도의 좁고 긴 원통형의 것이 유행하여 점차 확대되어졌는데,²²⁾ 그 형태에 있어 끊임없이 변화되어 갔다. 좁고 긴 원통형, 털이 긴 열소 털이나 여우, 캄의 털로 된 부풀고 가벼운 것, 짧

고 둥근 작은 통과 같은 것, 작은 에완건을 넣을 수 있는 것, 모피와 푼푼히 서링 잡은 실크를 조합한 것 등 다채로운 형태와 크기의 머프가 등장했다.

〈그림 4〉는 1787년 경 로코코 시대의 복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펠리스와 같이 안 전체나 가장자리만 모피로 장식한 펠레린(Pèlerine)을 입고 큰 원통형의 줄무늬로 장식된 모피 머프를 착용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는 전반기보다 크기가 확대되어 세기말에는 ‘작은 통’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총재 정부 시대의 복식을 보여주는 〈그림 5〉의 두 여인 모두 큰 머프를 착용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림 6〉은 1780년 경 남성 복식으로 은색 단추와 브레이드로 장식된 밝은 프록 코트(Frock coat)와 털 머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머프의 소재는 대부분의 경우 모피로 구성되나 이 시기의 경우 머프 제조에 있어 모피 제조인들과 새틴이나 고급 직물로 머프를 제조하는 사람들 간에 적대 관계가 생겨나 갈등을 초래했다.²³⁾ 그 예로 파리의 모피 제조업자들이 모피로 만든 머프 대신 직물로 만든 머프를 신사들이



〈그림 4〉 Rococo시대의 복식.
1787년 (서양복식사, p. 252).

18) Nicole Le Maux, *Op. cit.*, pp. 22-24.

19) 김혜경, “모피의류의 패션변화와 수출산업 육성방안 연구,” *복식* 38호 (1998), p. 247.

20) Nicole Le Maux, *Op. cit.*, p. 25.

21)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Op. cit.*, p. 126.

22) Maurice Leloir, *Op. cit.*, p. 232.

23) Nicole Le Maux, *Op. cit.*, p. 26.



〈그림 5〉 총재 정부시대의 복식.
1795년 (서양복식사, p. 279).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형 집행을 하는 망나니에게 화려하게 장식된 미단 머프를 선불하여 사형 집행 시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망나니는 이를 받아들였고 파리의 신사들은 망나니가 착용한 것과 같이 직물로 만든 머프를 착용할 수 없었으므로 직물로 만든



〈그림 6〉 런던의 남자 복식.
1780년 (2000 years of Fashion, p. 314).

머프는 점차 고상한 신사들에게서 사라져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에도 남성들의 액세서리로 머프 착용이 유행하였으나 후반기에 이르러 소재에 구분 없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²⁴⁾

다니엘 로슈(Daniel Roche)의 작품인 《La culture des apparences》에서 ‘5년에 1번 펠리스를 사고 10년에 1번 머프를 구입했다’ 라고 언급하였듯이 도심이 아닌 프랑스 지방의 경우 사람들은 버프를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온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착용하였다.²⁵⁾

3. 19세기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 당시 복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산업혁명과 대량 생산으로 인한 섬유 공업의 발달, 부의 축척은 자본주의를 탄생하게 하였다.

복식의 형태 역시 단순한 자연미를 나타내는 앵과 이어 스타일에서 왕정 복고기의 X자형의 과장된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 스타일로, 세기말에는 S 커브 실루엣의 비슨 스타일로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머프 역시 19세기 내내 실용적이고 우아한 장식구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왕정 복고기에는 직물로 된 것, 자수가 놓여진 것, 모피로 된 것 등 다양한 종류의 버프가 공존하였고 그 부피가 커졌다.²⁶⁾

머프에 사용되는 동물의 털 또한 다양화되어 흰 남비, 검은 담비, 멍크, 족제비, 검정이나 회색의 아스트라간, 회색 다람쥐, 수달, 비버, 친칠라, 여우, 원숭이 털 등이 있었으나,²⁷⁾ 검은 담비 털이 머프나 여자용 털목도리에 있어 최상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1865년 《Journal des Demoiselles》에 따르면 제 2 제정 때의 귀부인들은 모피 소재에 이중 단추나 꽃술 장식 등 화려하게 장식된 머프를, 노동자나 여성복 장식품 제조인 들은 벨벳, 인조털, 모직으로 된 머프에 만족했고, 젊은 아가씨들은 타프타로 안을 낸 편물로 된 토시를 만들 줄 알았다고 하였는데, 머프의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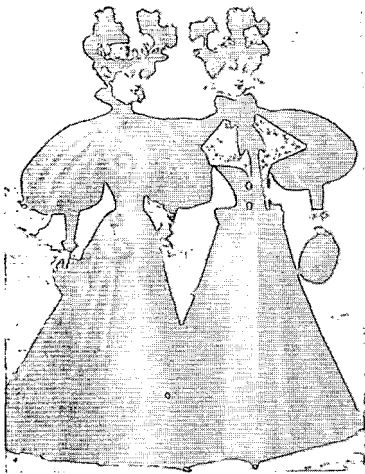
24) Max Von Boehn, 천미수 역, *Op. cit.*, p. 83.
25) Nicole Le Maux, *Op. cit.*, p. 27.
26) *Ibid.*, p. 27.
27) Palais Galliera, *Op. cit.*, p. 38.
28) Nicole Le Maux, *Op. cit.*, p. 28.

〈그림 7〉은 솜과 만틸라(Mantilla), 차양이 넓은 보닛(Bonnet)과 아울러 착용된 머프로 산책용 겨울의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9세기에 들어와 머프는 18세기에 비해 작고 드레시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머프 역시 풍선형 소매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의상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작은 크기를 보인다. 이 시기에 보여지는 머프는 작은 에원용 강아지를 넣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작아진 대



〈그림 7〉 산책용 겨울 의상.
1854년 (패션의 역사 2, p. 293).



〈그림 8〉 가을의 산보복.
1895년 (복식과 패션, p. 220).

신 장식끈, 레이스, 리본장식, 자수, 꽃 등으로 과도한 장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손수건, 분첩, 간단한 자수감 등을 넣어 다니는 경향을 보여 작은 핸드백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1880년 《La Mode Illustrée》에는 ‘염소가죽으로 된 주머니에 새틴으로 안을 낸 플러쉬(Peluche) 천으로 된 머프’를 묘사하고 있다.²⁹⁾

여성 복식에 있어 가지각색의 다양한 모드에 따라 다채롭게 보여진 머프는 남성 복식에 있어서는 19세기 초반 고대 풍의 유행으로 인해 더 이상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³⁰⁾

4. 20세기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산업화, 과학화, 대중화의 빈축을 맞이하였고, 대량 생산에 따른 기성복의 활성화, 여성들의 의식변화 및 각종 예술사조와 대중 문화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은 문화의 근대성과 우아함을 표출하게 되는 시기로 여성복은 아르누보의 영향아래 S-커브 실루엣으로 나타났으며, 머프는 원통형의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02년 경 납작한 머프(Manchon plat)가 등장하였다.

《La Mode Illustrée》에 ‘사람들은 머프를 많이 사용한다. 부드럽고 납작한 위 부분에서부터 꺾여지고 아래에서 넓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팔꿈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도시들이 있었다’³¹⁾라고 납작한 머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황새 깃털이나 레이스, 벨벳, 타프타, 기퓌르(Guipure) 레이스, 은으로 가장자리가 수 놓아진 아일랜드(Ireland)산 레이스, 말린(Malines)산 레이스로 러플 장식된 흰 담비 머프 등 이러한 고가의 것들은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우아함이 중시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손수건이나, 분첩, 극장용 오페라 글라스, 부채 등을 넣기 위해 작은 주머니가 있는 머프도 존재하여 우아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핸드백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 자동차의 등장으로 머프는 추운 겨울 운전할 때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과학의 진보 속에서도 신체 보호라는 머프 본연의 기본적인

29) *Ibid.*, p. 31.

30) Palais Galliera, *Op. cit.*, p. 38.

31) Nicole Le Maux, *Op. cit.*, p. 32.

역할을 이행하였다.

20세기 초반 형태나 재질의 다양함, 안락함, 환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머프가 등장했다. 긴 배개 형태의 것, 자유로운 형태의 납작한 것, 작은 북 모양의 것, 모피와 새틴, 실크 등이 교대로 떠올리는 것 등이다.³²⁾ 그러나 사람들은 토시의 모양보다는 사회적 상황, 위치에 따라 크기에 더 비중을 두고 고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9〉는 아르누보 복식의 전형적인 특징인 S-커브 실루엣을 보여주는 투피스 수트로 화려한 깃털 장식의 모자와 함께 작은 원통형의 토시를 착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 10〉은 긴 스톨(Stole)을 착용한 외출복으로 커다란 모자와 납작하고 큰 머프를 볼 수 있다.

1913년 경 여름용 머프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의 멋스러움을 위한 즉 하나의 Contenance를 위한 것으로³³⁾ 작은 장신구들을 넣어 다녔다.

1915년경부터 머프는 원통형의 머프(Traversin), 중간 크기 형태의 머프(Tonnelet), 짧고 부분 형태의 머



〈그림 9〉 S-커브 실루엣. 1906년 (근대복식문화사, p. 158).



〈그림 10〉 외출복. 1910년 (Le costume Francais, p. 291).

프(Tambour)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원통형의 클래식한 머프는 정장이나 망토, 드레스, 신부복과 함께 사용되었으나 과거에 머프에 장식하던 리본 장식의 매듭, 러플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남성 복식에서 자취를 감춘 머프는 세계 제 1차 대전 당시 장교들이 착용하기도 했으며, 가끔 사냥이나 숲 속에서 산책에 필요한 부차적인 장신구로 존재하기도 하였다.³⁴⁾

그러나 20세기 후반 젊은 모드와 스트리트 패션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류 복식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절충적인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등장하여 각각의 개성을 표출하게 되었고 머프는 일상적인 의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갔다. 단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Ⅳ. 머프에 내재된 미적가치

1. 실용성

신체는 역사 속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적 질서의 일부 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의복 및 패션으로 조절되어 사회, 문화적 신체가 되어 왔다.³⁵⁾ 또한 인류의 복식 착용에 관한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학설 중 하나는 신체 보호설로 춥거나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나 곤충이나 자연의 위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프의 착용은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에 손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사용한 것으로 여러 문헌이나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되듯이 털목도리나 망토, 코트 등 겨울 복장과 함께 착용되었다. 또 머프의 주 소재로 사용된 모피는 다른 어떤 의류보다 뛰어난 보온성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간 착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³⁶⁾

32) Ibid., p. 37.

33) Ibid., p. 38.

34) Palais Gallicra, Op. cit., p. 38.

35) 김소영, 이명화,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3호 (2004), p. 130.

36) 김혜경, Op. cit., p.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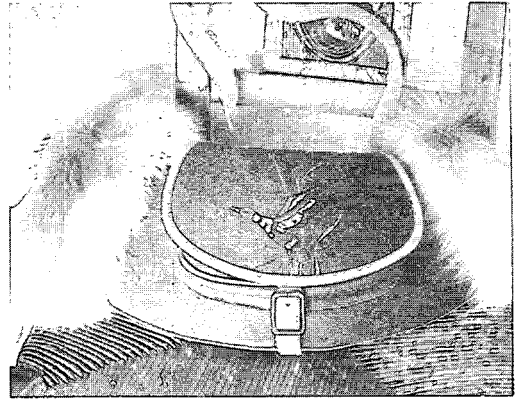
이러한 보온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도시 자체에 주머니를 만들어 작은 핸드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앞선 고찰에서 언급하였듯이 머프 안에 손수건, 분침, 간단한 자수감, 예교짐, 코담배 상자, 극장용 오페라 글라스, 부채 등을 넣어 다니기도 하였으며, 노동자 계급의 경우 빵을 넣기도 하였고, 17~18세기에는 작은 에완용 강아지를 넣어 다니기도 하였다.

〈그림 12〉는 사냥할 때 착용한 머프로 1873년 La masion Mettez의 상품으로 고급 모직물과 모피로 장식되고 자수장식이 되어 있다. 이러한 머프는 1865년 《La Mode Illustrée》가 사냥꾼을 위한 머프로 제안한 품목이기도 하며 20세기 초 《Manufrance》라는 카탈로그에 다시 등장하게 된 상품 항목이기도 하다.³⁷⁾ 사냥시에 두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에 걸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고 머프의 양 입구 부분에 모피 장식을 하여 보온효과를 높였으며 간단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백의 형태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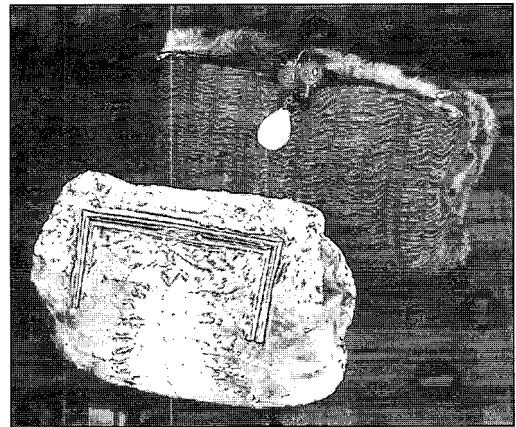
이러한 머프의 용도 변화는 1930년대 머프 백(Muff Bag)의 형태로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은 짧게 깎은 양털로 된 머프로 강철로 된 여민 장식은 사각형의 형태로 모던한 이미지를 주며, 뒤쪽의 것은 머프의 윗



〈그림 11〉 Mervicilleux. 1800년
(Secrets de manchons, p. 23).



〈그림 12〉 사냥꾼을 위한 머프 (Secrets de manchons, p. 62).



〈그림 13〉 머프 백. 1930년대 (Secrets de manchons, p. 41).

부분과 양옆을 모피로 장식하고 메탈로 된 잠금 장치 둘레에 두 개의 호박구슬로 장식한 것이다. 두 개의 머프 모두 핸드백의 역할과 함께 양 옆의 터진 입구에 손을 넣어 보온 효과를 주어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머프 백은 2001 F/W Chanel의 컬렉션에서도 보여진다. 유패한 팝 무드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컬렉션에서 보여진 작품 중 하나인 〈그림 14〉는 파스텔 컬러의 샤넬 슈트로 샤넬 로고가 새겨진 털목도리와 금빛 체인으로 복에 걸 머프 백으로 연출되었다.

37) Nicole Le Maux, *Op. cit.*, p. 62.



〈그림 14〉 Chanel (2001~2002 F/W).

2. 장식성

미의 추구를 위한 복식이나 기타 장식구에 있어서의 장식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격이나 사상 표현의 한 수단이 되며 그 시대의 사조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전통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개성에 따른 창의성을 나타내게 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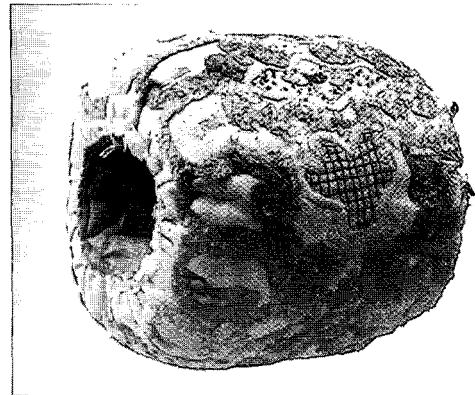
상식은 라틴어 'ornare' 즉 '장식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 표현 본능의 하나로 인간 자신과 생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³⁹⁾ 한 개인의 자아나 가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신분 표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머프에 있어서 화려한 색상의 사용, 다양한 문양과 자수, 부분 장식이나 표면 장식, 다양한 질감의 소재 사용 등이 장식성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 머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것은 하나의 멋스러움을 위한 것이고 새틴이나 실크 등 고급직물로 이루어진 머프 이외에 주 소재인 모피는 우수한 보온성과 함께 다양한 재질, 자연스러운 색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장식의 효과를 갖게 된다.

머프 한 개의 제작을 위해 보통 12~20개 정도의 모피 조각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실용성보다는 장식을 위한 사치성이 강한 물건으로 인식되었으나,⁴⁰⁾ 20세기 초 인조 모피의 개발과 모피 동물 사육의 성공 등으로 인한 다양화된 생산은 머프 제조에 있어서도 그 소비를 증가시켰다.

〈그림 15〉는 모두 18세기에 보여지는 머프들이다. 왼쪽의 것은 좁고 긴 원통형의 머프로 양 옆 모두 실크 리본으로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 부분은 은사와 서닐사, 실크 리본으로 자수되었고 양 옆 가장자리는 여러 가지 색상의 실크 사로 넝쿨 모양으로 자수 장식된 새틴 소재의 머프이다. 오른쪽의 것은 둥글고 작은 통 모양의 머프로 흰색 실크 위에 여러 가지 색상의 능직 실크로 자수되어 있으며 사금으로 장식된 머프이다. 모피 소재가 아닌 직물을 이용



〈그림 15〉 새틴 머프와 작은 통 모양의 머프. 18세기 (左: Haute couture & Pret-a-Porter, p. 20, 右: Fashion, p.95).

38) 신인수, 임상임, 김경희, 이신희, *현대패션의 이해* (서울: 교학연구사, 2003), p. 22.

39) 김민자, 최현숙, 이현주,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복식 51권 5호* (2001), p.165.

40) Nicole Le Maux, *Op. cit.*, p. 52.

한 것으로 보피가 갖는 풍성함이나 자연스러운 털의 이미지 대신 다양한 형태나 장식 효과의 변에서 색다른 멋을 보여준다.

〈그림 16〉은 1883년경 산책용 로브와 함께 착용된 머프이다. 벨벳으로 드레이프가 잡혀서 비슬 스타일을 연출한 스커트와 코르사주의 앙상블은 보피 소재의 머프와 팔라틴(Palatine)으로 따스함을 더해주고 있다. 머프 양쪽의 입구 부분에는 화려한 술 장식으로 사치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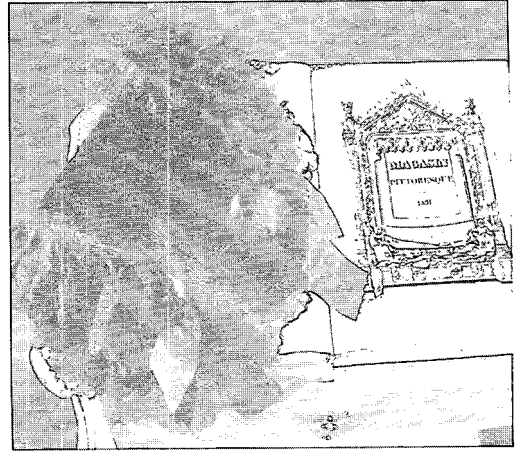
머프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18세기에 비해 다양화된 형태뿐 아니라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나 장식끈, 레이스, 리본 장식, 자수, 꽃 등으로 화려한 장식을 하여 사치성이 강한 물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⁴¹⁾

〈그림 17〉은 1890년경 검정 벨벳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작은 크기의 머프를 보여준다. 검정 몽고산 염소 털과 레이스로 된 리플로 양옆 입구 부분을 장식하였고, 머프 중앙 부분은 검정 새틴으로 리본 장식을 하여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의 깃털을 이용한 머프의 유행은 1891년



〈그림 16〉 산책용 로브와 머프. 1883년경 (*Fashion*, p. 263).



〈그림 17〉 머프. 1890년경 (*Secrets de manchons*, p. 24).

〈*La Mode Illustrée*〉에서 ‘검정색 실크로 안을 댄 머프, 머프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고 앞쪽은 여러 가지 색상의 깃털로 장식된 것으로 토크(Toque)와 잘 어울리는 머프’라고 소개하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⁴²⁾

〈그림 18〉은 1995~96 F/W Yves Saint Laurent의 컬렉션에서 보여진 작품으로 검정 벨벳 소재의 심플한 드레스에 화려한 수탉의 깃털로 구성된 머프를 착용한 것으로 과거 머프의 착용을 그대로 재현한 듯 장식 끈으로 연결하여 목에 걸고 연출되었다. 모피대신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단조로워 보이는 의상에 화려



〈그림 18〉 Yves Saint Laurent. (1995~1996 F/W).

41) Palais Galliera, *Op. cit.*, p. 38.

42) Nicole Le Maux, *Op. cit.*, p. 53.

한 장식적 효과를 주고 있다.

3. 패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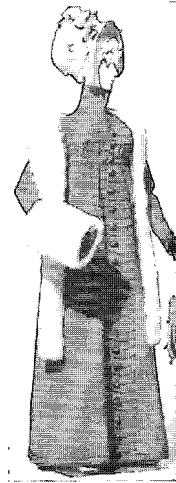
우리들 모두 패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패션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집단 속에서 유행하는 복식에 대한 습관이나 스타일을 말하는 패션은 ‘만드는 것, 행위, 동작’을 의미하는 라틴어 ‘Fac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은 사물을 동시적,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수많은 개별 취향의 총화인 대중적 취향이다.⁴³⁾ 이미 오래 전부터 의상과 장식구를 포함하여 머리 스타일, 화장 등 인간 신체 신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탈 패션으로서의 개념은 인간의 내·외적인 개성에 알맞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패션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부수적인 장식구인 머프는 그 기원에서부터 손과 관련하여 따뜻하게 감싸주고 유혹하는 몸짓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멋스러움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착용되었으며, 착용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의 외양과 태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머프의 주 소재인 모피가 갖는 자연의 색은 패션에 있어 색채의 풍요로움을 선사하였고 어떠한 디자인의 의상과도 잘 어울릴 수 있으며 패션에 부합한 변화성을 갖게 한다. 과거 머프의 소재 중 최상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검은 담비를 중심으로 아스트라간, 친철라, 여우, 밍크 심지어 원숭이의 털에 이르기 까지 자연 본연의 털이 갖는 여러 이미지만으로도 머프에 패션성을 갖게 한다.

〈그림 19〉는 장식 끈과 장식 금줄 단추로 여뒀 처리된 빨강 폴란넬 소재의 르덴고트(Redingot)와 연출된 머프이다. 순백의 백조 털로 된 머프와 웰라틴은 강렬한 빨강 색상의 의상 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백조 털의 우아하고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0〉은 1938년 Marie Claire의 첫 번째 호 표지 사진으로 겨울 의상이 아닌 반짝이는 새틴 소재의 드레스와 동일한 소재의 머프로 안에 숨을 대거나 페드



〈그림 19〉 르덴고트와 머프. 1810년 (Fashion, p.178).

를 넣지 않고 얇고 납작한 형태의 것으로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각 시대의 최신 유행을 보여주는 패션 잡지의 표지 사진에 이러한 머프의 연출로 당시의 유행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1〉의 왼쪽은 1946년 겨울 Balenciaga의 작품으로 검정 양모 소재의 원피스와 연출된 머프이다. 스커트의 커다란 리본장식과 동일하게 검정 양모 소



〈그림 20〉 Marie claire 표지사진. 1938년 (Secrets de manchons, p. 39).

43) 김민자, 최현숙, 이현주, Op. cit., p. 169.

제의 머프 중앙에도 타프타로 된 커다란 리본 장식이 되어 의상과의 통일된 조화감을 준다. 오른쪽 역시 1950년 Balenciaga의 작품으로 심플한 검정 수트와 함께 연출된 머프이다. 흰 담비 털로 된 머프는 털목도리와 함께 통일감을 주고 모던한 의상과 함께 아무런 장식이 없는 원통형의 머프는 세련된 이미지를 갖게 한다.

1997 F/W Givenchy의 오프루워르 컬렉션에서 Alexander McQueen은 과장된 헤어스타일,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영국 봉이 온통 뒤섞인 글로벌 시대의 에스닉 룩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22>와 같이 수십 개의 야생동물의 꼬리털을 이용한 머프와 함께 연출되었으며, 2003 F/W 지춘희의 컬렉션은 클래식으로의 회귀라는 주제 속에서 페티 코트를 넣어 살짝 부풀린 폴스커트는 가죽 재킷, 머프와 함께 연출되었다. 모피로 된 머프 양쪽에 가죽띠와 비컬로 장식하여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킷과 동일한 소재의 띠로 의상과 전체적인 조화를 주고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머프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머프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연구하였다. 인체 중 아름다운 손은 여성들의 큰 관심사로 머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수세기 동안 여러 형태와 진보를 거쳐 장식적이고 의상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되거나 옷차림을 완성시켜주는 장신구의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였다.

16세기 후반 프랑스 궁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머프는 단순한 장신구의 개념을 넘어 의복의 외관을 특징짓는 중요 요소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17세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머프를 착용하였으며 귀족 계층은 고급스러운 모피 소재를, 부르주아 계층은 일반적인 동물의 털을 사용하였다. 특히 남성들은 *Passe-caille*라고 불리는 띠를 사용하여 허리나 목에 매고 다니는 특이함을 보였으며, 17세기 후반기에는 머프의 크기가 아주 작아져 머프 위에 모석이나 난추리본, 끈 등으로 장식하였다.

18세기 역시 남녀 모두 착용하였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남성들의 착용은 사라져갔다. 머프의 크기는 전반기에는 작은 것이 주를 이루나 후반기로 갈수록 확



<그림 21> Balenciaga (左: 1950년, 右: 1946년).



<그림 22> Givenchy Haute Couture (2003 F/W).

<그림 23> 지춘희 (1997 F/W).

대되어졌고 형태는 좁고 긴 원통형, 작은 통과 같은 것, 작은 에워건을 넣을 수 있는 것 등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다채로운 복식의 스타일과 함께 머프는 실용적이고 우아한 장신구로서 존재하면서 다양한 모피, 직물, 편물로 된 머프가 공존하였고 아주 작아진 크기로 인하여 레이스, 리본장식, 자수, 꽃등으로 과도한 장식을 하였다.

20세기에는 분화와 산업의 변혁기를 맞이하면서 원통형의 머프가 슈류블 이루어면서 납작한 형태, 머프

백의 형태, 짧고 부풀 형태, 머프 등 다채로운 형태의 것들이 공존하였으나 사람들은 머프의 형태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크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머프는 대중문화의 활성화와 기성부의 발전 등으로 점점 일상복의 범위에서 사라져 갔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유추되는 머프에 내재된 미적 가치는 실용성과 장식성, 패션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손의 보호를 목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한 머프는 보온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작은 주머니를 머프 안에 만들어 간단한 장신구나 필요한 소지품, 애완용 강아지 등을 넣을 수 있는 핸드백의 역할을 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갖는다. 또한 주 소재가 되는 모피의 다양한 털의 사용으로 소재만으로도 풍부한 장식성을 가지면서, 기타 다양한 소재의 변화와 화려한 색상, 다채로운 문양, 자수, 부분 장식 및 표면 장식 등을 통해 각각의 머프에 다양한 장식성을 표현하였으며 색상이나 소재에 따라 신분 표시의 수단 및 개성에 따른 창의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용성과 장식성을 갖는 머프는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부수적인 장신구로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태도나 몸가짐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패션을 주도하는 계층의 주요 품목으로 존재해왔다. 일상 복식에서 점차 사라져간 머프는 이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통해 접할 수 있으나 토털 패션을 추구하는 현대에 이르러 머프의 패션성은 독자적이면서 의상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패션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역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에 대한 논의들 기반으로 의상 외의 기타 부수 복식 및 장신구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창의적인 토털 패션 디자인의 전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실물을 통한 연구가 아닌 문헌자료에 근거한 작품 분석으로 실제 소재 및 장식 등을 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낸다.

참고문헌

- 김민자, 최현숙, 이현주 (2001).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 I.” 복식 51권 5호.
- 김소영, 이병화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비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3호.
- 김혜경 (1998). “모피의류의 패션변화와 수출산업 육성방안 연구.” 복식 38호.
- 신인수, 임상임, 김혜경, 이진희 (2003). *현대패션의 이해*. 교학연구사.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6). *복식문화*. 교문사.
- 정홍숙 (1995). *근대복식문화사*. 교문사.
-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Black, J. Anderson and Garland, Madge (1997). *세계패션사 1*. 윤길순 역. 자작아카데미.
- Boucher, Francois (1987). *2000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 Galliera, Palais (1984). *Indispensables Accessoires*. Paris: Palais Galliera.
- Laver, James (1982).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 Leloir, Maurice (1992). *Dictionnaire du costume*. Paris: Grund.
- Lcs Collections du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Fashion*. Paris: Taschen.
- Losche, Ingrid (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재원 역. 한길아트.
- Maux, Nicole Le (1996). *Secrets de manchons*. Paris: Syros.
- Meij, Jetse (1998). *Haute couture & Pret-a-Porter*. Gemeentemuseum The Hague.
- Payne, Blanche (1988). *복식의 역사*.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까치.
- Remary, Bruno (1994). *Dictionnaire de la Mode au XX e siecle*. Paris: Editions du Regard.
- Ruppert, Jacques, Delpierre, Madeleine, Davray- Piekolek, Renee, Gorguet-Ballesteros, Pascale, (1996). *Le Costume Francais*. Paris: Flammarion.
- Von Boehn, Max, (2000). *패션의 역사 1*. 천미수 역. 한길아트.
- Von Boehn, Max, (2000). *패션의 역사 2*. 천미수 역. 한길아트.